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팬데믹에도 투자 유치 가속페달



싸토리우스 투자유치 MOU 체결식



글로벌 백신 허브 민간 협력 협약식



DNA 백신 연구개발·제조시설 투자 계약 체결식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의 기업 투자 유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독일의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인 '싸토리우스'가 IFEZ 송도국제도시에 3억 달러 규모의 바이오·의약 원·부자재 분야에 시설을 투자하기로 했다. 싸토리우스가 지난해 11월 투자의향서(LOI)를 통해 밝힌 바이오·의약 공정 분야 연구개발 및 제조를 위한 당초 투자액 1억 달러 규모보다 3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1870년 설립된 싸토리우스는 60여 개국에 지사와 임직원 1만600여 명을 둔 글로벌 기업이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3조2천억 원에 이른다. 싸토리우스는 한국을 전 세계 수출 거점 중 하나로 육성하고, 보유한 기술을 한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지난 2019년 12월 6일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한 EMP벨스타가 참여한 벨스타슈퍼프리츠 컨소시엄의 투자도 가시화하고 있다.

이 컨소시엄은 지난 9월 인천항만공사와 사업 추진 계약을 체결하고 IFEZ 신항 배후단지 안에 국내 최대 규모의 초저온 복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기로 했다. 투자액은 3년간 4천968억 원에 달한다. 연간 약 29만mt 용량의 냉동·냉장 화물 처리 시설이 들어서고 약 25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월에는 청라국제도시 IHP 첨단산업단지 안에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핵심부품인 '스택' 생산시설을 유치하기도 했다. 현대모비스는 9천227억 원을 들여 10만304㎡ 부지에 스택 제조 시설을 짓는다. 올해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23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내 생명공학 기업인 제넥신의 자회사 에스엘포젠과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B)에 지상 4층 규모의 DNA 백신 연구 개발 및 제조 시설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2023년 완공하는 토지매매계약도 체결했다.

아울러 송도 산업·연구시설 용지 내 유수 기업 연구소 유치 공모에서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송도 인천테크노파크 확대 조성 단지 Sr14 필지(면적 3만444㎡)에 본사와 연구소를 건립해 코로나19 백신 등 다양한 감염성 질환의 백신 개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또 전 세계에서 열리는 자동차 부품, 유통, 물류 관련 전시회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여해 투자 유치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IFEZ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Global Business Frontier, IFEZ



혁신성장을 통한 **탄탄한 산업생태계 구축**



신산업거점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가속화**



최상의 정주환경을 갖춘 **고품격 스마트도시 건설**



시민편의 중심 **국제도시 기반시설 조성**